

국어 영역(B형)

성명

수험번호

3

1

남학생2: 네, 저도 그 활동은 제외하고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만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앞서 논의한 방식으로 홍보한다면 재능 기부

사회자: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봉사 활동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가진 재능을 나누게 되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협의된 의견을 학생회에 개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절차

토의 방식

A	문제 확인
---	-------

해결해야 할 문제와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

B	문제 분석
---	-------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함.

C	대안 탐색
---	-------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제시함.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함.

E	대안 평가
---	-------

협의를 대안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따져
봄.

- ① A: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재능 기부 봉사활동의 운영에 대해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군.
- ② B: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도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재능 기부 봉사활동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었음을 분석해 냈군.
- ③ C: 해당 교육기관 방문이나 홈페이지 활용 등의 홍보 방식과 프로그램 추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군.
- ④ D: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과 홍보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했군.
- ⑤ E: 협의 내용이 실행되면 상호 발전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군.

- ①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토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발언이 주제에서 벗어남을 지적하며 토의 주제를 환기하고 있다.
- ③ 발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④ 토의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과 의견 충돌 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있다.
- ⑤ 토의 참여자가 발언 기회를 독점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3. 다음 대화에서 선생님이 사용한 의사소통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선생님: 지아야, 힘이 없어 보이네. 무슨 일 있니?
지 아: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그래, 그럼 다행인데, 아무래도 선생님은 지아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지 아: 저……. 고민이 있긴 한데…….
선생님: 저런, 고민이 있어서 그렇게 힘이 없어 보였구나.
지 아: 사실 저는 다시 미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선생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래, 지금 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겠구나.
지 아: 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접었던 미술 공부를 대학에 가서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진로를 바꾸기에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냐며 부모님께서 반대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선생님: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래서 대학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싶다는 네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지 아: 음……. 아무래도 제 진로를 부모님과 얘기해 보는 것이 좋겠죠? 부모님께서 반대하실지 확실하지도 않고요.
선생님: 응, 그래. 부모님과 얘기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구나.
지 아: 네, 선생님.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래, 앞으로는 지아의 밝은 모습을 기대할게.

- ① 자신의 경험담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상대방 말에 맞장구치며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주요 표현들을 반복하여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 ⑤ 상황에 맞는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5] 다음은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면접관: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심리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하여 답변해 보세요.
학생1: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저의 꿈은 경찰이에요. 근데 요즘은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요.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려면 이제는 범인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경찰에게 필수적인 능력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학생2: (면접관과 시선을 맞추며)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 사이의 관계나 심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어내서 친구들을 놀라게 한 적도 있었습니 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면접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입학 후 학업 계획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학생1: 저는 미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을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1학년 때에는 평소에 흥미 있었던 심리학 개론, 심리 통계 등 전공 필수 과목을, 2학년 때에는 내가 하려는 직업과 관련된 법심리학, 범죄 심리학과 같은 선택 과목을 공부할 계획이에요.

학생2: 음…….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일단 전공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면접관: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지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함께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1: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데……. [A] 근데 지음이 뭐예요?

학생2: 죄송합니다. 저도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 두 학생에 대해 면접관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면접 채점표					
평가 준거	학생1		학생2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지원 동기를 면접관의 질문 의도에 맞게 답변했는가?	✓			✓	... ①
학업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답변했는가?		✓		✓	... ②
불필요한 내용이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③
격식에 맞는 어법으로 답변했는가?		✓	✓		... ④
비언어적 표현이 적절한가?	✓		✓		... ⑤

5. [A]에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한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학생들이 답변의 순서를 지키지 않고 말했기 때문이다.
- ② 학생들이 서로에게 과도한 경쟁심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 ③ 면접관이 학생들의 면접 태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 ④ 면접관이 두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면접관이 사용한 어휘를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6~7]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 논설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6. <보기>는 협동 작문을 위해 모둠원들이 협의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혜연: 이번 협동 작문 과제는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것인데,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논지로 글을 쓰는 것은 어때?

종원: 어떤 책에서 보았는데, 장애인 고용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양적인 측면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해. 이번에는 고용의 안정성, 직업군, 직무 만족도 등 질적 수준에 초점을 두고 글을 쓰는 것이 좋겠어. 그런데 장애인들도 취업을 위해서는 그 직종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본호: 그럼 글의 주제를 고용의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직업 훈련을 내실화하여 장애인 고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려면 장애인 고용 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시작하면 좋겠어. 그리고 장애인 취업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장애인들이 어떤 직종에서 어떤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해야겠어.

도은: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장애인 직업 훈련이 고용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와 직업 훈련 실태에 관한 자료도 찾아보자. 그리고 직업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설문 조사한 것도 찾아보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장애인 직업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적절한 해결 방안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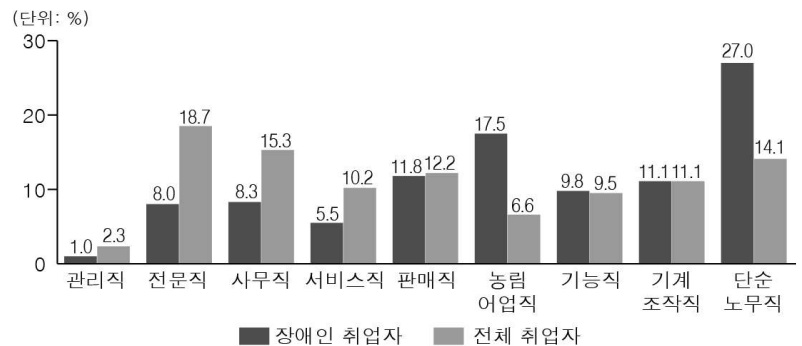
주제문	· 장애인 직업 훈련을 내실화하여 장애인 고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
수집할 자료	· 직업별, 고용 형태별 장애인 취업자 구성 비율에 대한 통계 자료 · 장애인 직업 훈련 실태에 대한 신문 기사 자료 … ① · 장애인 고용 관련 인터뷰 자료 ·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자료 …………… ②
내용 구성 방안	I. 서론 : 장애인 고용의 실태를 제시하며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함. …………… ③ II. 본론 1. 장애인 고용 실태와 직업 훈련의 상관성을 제시함. 2. 직업 훈련이 부실한 원인을 밝힘. …………… ④ 3. 직업 훈련 부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 4. 장애인 고용 인원 증가를 위해 직업 훈련을 개선해야 함을 제시함. …………… ⑤ III. 결론 : 논의를 종합하며 주제를 강조함.

7. <보기>는 글쓰기 계획을 작성한 후,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통계 자료

1. 직업군별 구성 비율(장애인 취업자/전체 취업자)



2. 비정규직/정규직 비율(단위: %)

장애인 취업자		전체 취업자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63.2	36.8	33.1	66.9

(나) 신문 기사

장애인 고용의 안정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업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 전체 인구의 3.9%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직업 훈련은 몇몇 직업군에 집중되어 있어 선택의 기회가 많지 않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전체 인구의 평균 임금 대비 2/3 수준이다.

— ○○신문 —

(다) 전문가 인터뷰

현재 장애인 직업 훈련은 몇몇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에 취업하지 못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없어 직무 만족도가 낮습니다. 또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높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 김○○ 교수

- ① (가)와 (다)를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 상황이 고용 안정성과 직무 만족도에서 미흡한 수준임을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직업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직업 훈련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 ③ (나)와 (다)를 활용하여,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취업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직업 훈련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 ④ (가)-1과 (나)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직업 훈련이 전문적 직업군 보다는 희망 취업 분야의 직업군에 집중되어 있는 실태를 제시한다.
- ⑤ (가)-2와 (다)를 활용하여, 장애인 취업자의 정규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8. 동아리 공지 사항을 바탕으로 ‘하윤’과 ‘원우’가 초대장의 초고를 작성하였다. 상호 평가 과정에서 서로에게 조언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참소리’ 동아리 공지 사항

- ○○고등학교 관현악 동아리 ‘참소리’ 창단 연주회가 2013년 5월 5일 오후 7시에 평화문화센터 1층 강당에서 개최됨.
- 이번 공연은 열심히 연습한 우리 동아리의 연주를 통해 ‘참소리’ 동아리의 창단을 알리고 지역 주민과 문화적 감성을 공유하려는 취지로 마련됨.
- 많은 주민들이 우리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따라서 다음 회의 때까지 각자 초대장을 작성해 올 것. 초대장의 내용을 상호 검토하여 최종안을 작성할 예정임.

【하윤의 초대장】

‘참소리’의 창단을 알리는 관현악으로의 초대

드디어 ○○고등학교 관현악 동아리 ‘참소리’가 2013년 5월 5일에 평화문화센터 1층의 넓은 강당에서 역사적인 공연을 펼칩니다. ‘참소리’의 창단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을 통해 지역 주민과 감성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오후 7시까지 많이많이 오셔서 즐기세요.

【원우의 초대장】

여러분을 ○○고등학교 관현악 동아리 ‘참소리’가 만드는 아름다운 선율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 주민과 함께 멋진 연주를 하고 ‘참소리’와 우리 학교 동아리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 일시 : 2013년 5월 5일 오후 7시
- 장소 : 평화문화센터 1층 강당

싱그러운 봄날,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윤이 원우에게	• 공지 사항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은 전달하지 말아야 해. ① •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겠어. ②
원우가 하윤에게	• 독자들이 행사의 취지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밝히는 것이 좋겠어. ③ • 독자와 글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 ④ • 중요한 내용을 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항목별로 구분해 주는 것이 좋겠어. ⑤

-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친구들에게 여행지를 추천하는 글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자.

[학생이 쓴 글]

- 처음 쓴 글

진도에 가면 조수간만에 따라 바다가 갈라져 드러나는 바닷길이 있어. 그때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리는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진도 여행을 추천할게.

A

- 수정하여 쓴 글

진도에서는 조수간만에 따라 바다가 갈라져 마치 모세의 기적과 같은 바닷길이 형성됩니다. 이 기간에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려 남도들노래를 배우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여행으로 자연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의 전통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진도 여행을 추천합니다. 올해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은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B

- 게시판에 올린 글

제목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여행을 추천합니다!

진도에서는 조수간만에 따라 ㉠ 물의 수심이 낮아지면서 바닷길이 형성됩니다. ㉡ 예를 들면, 조개도 줍고 지역특산물도 무료로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강술래 ㉢ 공연과 남도들노래도 배울 수 있습니다. ㉣ 진도군 역시 이 축제로 해마다 적지 않은 관광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축제에서 남도민요를 배웠던 경험과 바닷길을 걸으며 느꼈던 상쾌한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해 보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많이 ㉤ 소개해 주세요.

한 번의 여행으로 자연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의 전통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진도 여행! 올해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은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신비의 바닷길 축제’ 홈페이지 <http://miraclesea.jindo.go.kr/>

9. 작문 과제의 수행 중 A, B에서 활용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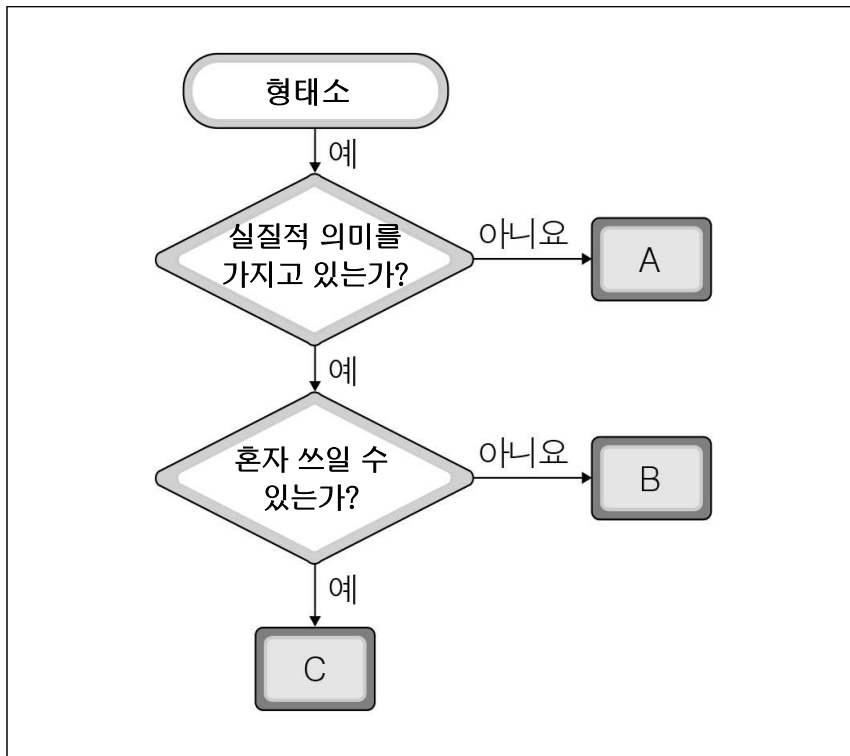
- ① A: 글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 축제의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한다.
- ② A: 학교 홈페이지는 여러 사람이 읽는 공식적인 매체이므로 정중한 표현을 사용한다.
- ③ B: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직접 체험한 내용을 추가한다.
- ④ B: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한다.
- ⑤ B: 독자가 축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더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미가 중복되므로 ‘물의’를 삭제한다.
- ② ㉡: 문장 간 긴밀한 연계를 위하여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 ③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공연도 보고’로 고친다.
- ④ ㉣: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 ⑤ ㉤: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소개시켜’로 고친다.

11. 다음의 탐구 과정에 따라 <보기>의 ㉠ ~ ㉤을 분류하고자 한다.

A ~ C에 해당하는 사례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북두칠성은 ㉠ 어느 계절에나 북쪽 밤하늘을 보면 쉽게 찾을 수 ㉡ 있다. 북두칠성을 흔히 국자㉢ 에 비유하는데, 그것이 국자라면 국을 쏨을 때 국이 흐를 마지막 두 별을 잇㉣ 는 직선상에 있는 별 중 가장 밝고, 두 별의 간격의 다섯 배쯤에 있는 별을 발견할 것이다. 그 ㉤ 자리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밤 하늘의 북극성이다.

- | | A | B | C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12. 다음은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 자음 동화

자음 동화에는, 자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ㅇ, ㄴ, ㄹ’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와 자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있다. ‘국물[궁물]’은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의 사례이며, ‘난리[날리]’는 ‘ㄴ’이 ‘ㄹ’ 앞에서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의 사례이다.

선생님의 설명

‘음운의 첨가’란 원래는 없던 소리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맨입으로는 알려 줄 수 없다.’에서 ‘맨입’은 ‘[맨닙]’으로 발음됩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첫 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기 때문이지요. 또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 ㄹ’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됩니다. 이때에는 ‘뒷문[뉘문]’의 경우처럼 앞말에 사이시옷(‘ㅅ’)을 넣어서 이를 표시해 준답니다.

< 보 기 >

- ㄱ. 그는 날렵한 ㉠ 콧날[콘날]이 매우 인상적이다.
- ㄴ. 나는 아끼던 ㉡ 색연필[생년필]을 잃어버려 속이 상했다.
- ㄷ. 그 사람은 회사의 ㉢ 막일[망닐]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 ㄹ. 아이가 아직 알약을 먹지 못해서 ㉣ 물약[물략]을 지어갔다.
- ㅁ. 그녀는 ㉤ 잇몸[인몸]이 약해져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 ① ㉠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으로 시작되는 합성어이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② ㉡에서 ‘ㄴ’ 소리가 첨가된 이유는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여’로 시작하는 합성어이기 때문이군.
- ③ ㉢은 ‘ㄴ’ 소리가 첨가된 후, ‘ㄹ’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화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④ ㉣은 ‘ㄴ’ 소리가 첨가되어 ‘[물낙]’으로 바뀐 후, ‘ㄹ’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⑤ ㉤은 사이시옷을 넣어서 ‘ㄴ’ 소리가 첨가됨을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13.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의 메모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완성하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가끔’처럼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나 ‘산뜻하다, 훨씬, 움찔, 엉뚱하다’처럼 ‘ㄴ, ㄹ, ㄹ, ㅍ,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다만, ‘갑자기’와 같이 ‘ㄱ, ㄷ’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똑똑(-하다)’처럼 같은 음절이 겹쳐 나거나 ‘쑹쑹’처럼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보 기 2〉

형의 ㉠(해숙한/해썩한) 모습에 어머니께서도 걱정되었나 봐. ㉡(짹잘한/짹잘한)음식은 몸에 좋지 않다고, ㉢(깍두기/깍뚜기)를 심심하게 담그시더니 형에게 보내라고 하시네. 혼자서 밥을 챙겨먹기는 힘들겠지만 ㉣(듬북/듬뿍)담긴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해서 끼니 거르지 마. 이제 형은 집 걱정 ㉤(몽당/몽땅) 잊고, 건강 먼저 챙겨.
동생이

- ① ㉠은 한 단어 안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고,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해썩한’으로 써야 한다.
② ㉡은 ‘ㄷ’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고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고 있으므로 ‘짹잘한’으로 써야 한다.
③ ㉢은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고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지 않으므로 ‘깍뚜기’로 써야 한다.
④ ㉣은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듬뿍’이라고 써야 한다.
⑤ ㉤은 한 단어 안의 첫음절 ‘ㅇ’ 받침 뒤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몽땅’으로 써야 한다.

14. 다음은 표준 발음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일부이다.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ㅈ ㅊ ㅋ ㆁ ㄷ ㄹ ㄴ ㄷ ㄹ ㄴ ㄷ ㄹ ㄴ’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2. ‘예, 레’ 이외의 ‘ㄷ’는 [ㄷ]로도 발음한다.

다만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는 [ㄴ]로 발음한다.

다만4.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i]로, 조사 ‘의’는 [e]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ㅣ	ㅘ
i	e

2. 이중모음

ㅙ	ㅚ
ye	ui

【붙임1】 ‘ㄴ’은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 ① ‘승례문’에서 ‘례’의 ‘ㄷ’는 [ㄷ]로 발음해야 하므로 ‘e’로 표기해야 한다.
② ‘도예촌’에서 ‘예’의 ‘ㄷ’는 [ㄷ]로도 발음할 수 있으므로 ‘e’로 표기할 수 있다.
③ ‘퇴계원’에서 ‘계’는 ‘예, 레’ 이외의 ‘ㄷ’이어서, [ㄷ]로 발음해야 하므로 ‘e’로 표기해야 한다.
④ ‘충의사’에서 ‘의’는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이어서, [i]로 발음되나 ‘ui’로 표기해야 한다.
⑤ ‘광희문’에서 ‘희’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이어서, [i]로 발음되므로 ‘i’로 표기해야 한다.

15. 다음은 틀리기 쉬운 문장에 대한 탐구 학습지이다. 과제를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학습지

과제: 다음 [탐구 자료]를 [과제 수행표]에 맞게 고쳐 쓰시오.

[탐구 자료] 틀리기 쉬운 문장

- ㉠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여간 기뻐다.
㉡ 나는 주중에는 자전거를, 주말에는 수영을 한다.
㉢ 버스가 왼쪽으로 좌회전한 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하게 하고 있습니다.
㉤ 그 문제는 어려워서 풀려지지 않았다.

[과제 수행표]

자료	고쳐야 하는 이유	고친 문장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올바르게 맞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여간 기쁘지 않았다. ①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됨.	나는 주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는 수영을 한다. ②
㉢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됨.	버스가 좌회전한 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③
㉣	사동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함.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시키고 있습니다. ④
㉤	이중 피동어를 사용함.	그 문제는 어려워서 풀리지 않았다. ⑤

16.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음운 ‘빙’, ‘△’,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ㅁ술 > ㅁ을 > 마을	
ㅁ술 > ㅁ을 > 가을	
ㄴ. (날씨가) 덥(다) + -어; 더벼	
ㄷ. (색깔이) 곱(다) + -아; 곱바 > 곱와	
(고기를) 곱(다) + -어; 구벼 > 구워	

- ① ㄱ으로 보아, 중세 국어 ‘ㅁ술’과 ‘ㅁ을’의 ‘△’은 음운 변화 양상이 같았음을 알 수 있군.
- ② ㄱ으로 보아, ‘·’는 현대 국어에서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에서 변화된 음운의 모습이 같았음을 알 수 있군.
- ③ ㄴ으로 보아, ‘덥다’의 ‘ㅁ’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빙’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군.
- ④ ㄷ으로 보아, ‘빙’에 결합되는 어미의 모음에 따라 현대 국어에서의 표기가 달라지는군.
- ⑤ ㄱ과 ㄷ으로 보아, ‘△’과 ‘빙’은 현대 국어에 표기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라고 말한다. 이러한 네트워크효과에는 유행효과와 속물효과가 있다.

어느 한 상품이 유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상품을 구입하려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것을 유행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유행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A 게임기의 가격이 20만 원일 때 5천 대, 15만 원일 때 6천 대로 수요량이 변한다고 한다. 그런데 유행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20만 원이었던 A 게임기의 가격이 15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게임기의 수요량이 6천 대가 아닌 8천 대로 늘어난다고 하자. 이는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게임기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이들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소비가 창출된 결과, 수요량의 증가폭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행효과는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이나 연예인을 동경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 소수만이 소유하기를 바라는 심리가 ㉠ 깔려 있는 경우, 그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 이렇게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지 않게 되는 것을 속물효과라 한다. 예를 들어 속물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B 손목시계 가격이 3백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1천 개 더 늘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속물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B 손목시계의 가격이 1백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의 증가폭이 5백 개에 그쳤다고 하자.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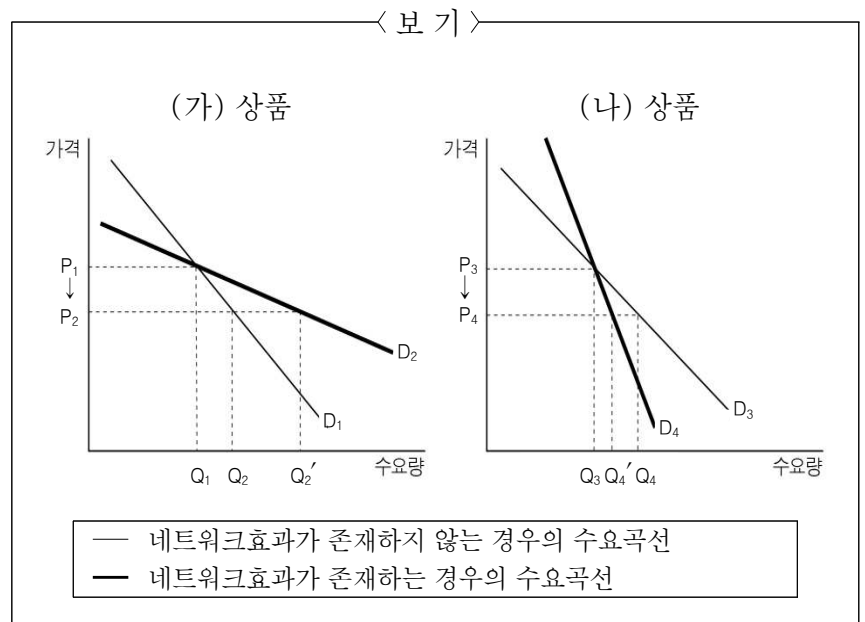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어 남들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심리가 충족되지 못해 그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이 생겨나므로, 결과적으로 수요량의 증가폭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속물효과는 상품의 희소성이 약화될 때 나타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높은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할인이나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자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들과 독립적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의 두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의 수요가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17.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네트워크효과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② 유행효과가 유발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③ 유행효과는 어떤 소비자에게서 잘 나타나는가?
- ④ 속물효과에 따라 수요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⑤ 속물효과를 발생시키는 심리적 배경은 무엇인가?

※ <보기>는 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의 수요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18번과 19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18. 밑글과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상품의 가격이 P_1 에서 P_2 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_1 에서 Q_2 로 증가했다면, 유행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군.
- ② (가) 상품의 가격이 P_1 에서 P_2 로 하락할 때 유행효과가 존재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Q_1 에서 Q_2' 만큼 수요량이 더 증가하겠군.
- ③ (나) 상품의 가격이 P_3 에서 P_4 로 하락할 때 속물효과가 존재한다면, 수요량은 Q_3 에서 Q_4' 로 변화하겠군.
- ④ (나) 상품의 가격이 P_3 에서 P_4 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_4 가 아니라 Q_4' 로 된다면, 타인과 차별화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이겠군.
- ⑤ D_1 과 D_2 , D_3 과 D_4 를 각각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수요가 개인의 수요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군.

19. 다음은 <보기>의 (가), (나) 상품에 대한 판매 전략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품	판매 전략
(가)	상품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무료 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사람들의 구매를 촉진한다. ①
	유명인들이 해당 상품을 방송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줌으로써 상품의 소비를 대중적으로 확대시킨다. ... ②
(나)	가격 경쟁보다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이미지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③
	해당 상품의 수량을 조절하여 상품의 시장 판매량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④
	해당 상품과 어울리는 상품을 묶음으로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상품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줄인다. ⑤

20. 밑줄 친 단어 중, ㉠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내 가방에 깔려 납작해진 빵을 발견했다.
- ② 할머니 집 마루에는 돛자리가 깔려 있었다.
- ③ 그 사람의 말에는 좋은 의도가 깔려 있었다.
- ④ 동네에는 그에 대한 소문이 꼭 깔려 있었다.
- ⑤ 여기저기에 깔려 있는 돈만 해도 상당한 액수였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자학과 양명학은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인 ‘이(理)’를 탐구한다. 하지만 주자학의 ‘이’는 ‘만물의 본성이 곧 이치’라는 ‘성즉리(性卽理)’이며, 양명학의 ‘이’는 ‘내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卽理)’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주자학의 ‘이’는 인간 주체와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늘의 이치’이다. 만물이 존재하는 근원적인 원리로서의 ‘이’는 하나이지만 각각의 사물에는 저마다의 ‘이’가 개별적으로 담겨 있다. 즉 만물에 있는 개별적인 ‘이’는 모두 다르지만, 근원적인 ‘이’는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하늘의 이치’인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물에 들어 있는 ‘이’를 탐구한 다음,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므로 주자학적 전통은 개별적인 ‘이’ 보다 하늘의 이치인 ‘이’에 대한 예의법도를 중시한다.

지방마다 절도사를 두어 행정과 군 통치권을 맡겼던 당나라는 왕실의 힘이 약화되면서 절도사들의 반란이 잦아졌고 그 결과 멸망했다. 이에 송나라에서는 군주에게 의리(義理)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송나라 지식인들은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를 ‘현실에서의 의리’로 보았고, 주자학적 전통을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통치 원리로 삼았다.

양명학을 창시한 ‘왕수인’은 ‘이’가 주체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마음의 본체는 ‘양지(良知)’이며, 양지는 곧 하늘의 이치라고 하였다. 그의 철학은 인간 주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사람은 하늘의 이치인 양지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양지는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타고난 도덕적 자각 능력이다. 그래서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에서 벗어나서 양지를 회복하는 과정을 강조했다. 자신의 양지를 보존하려는 마음, 자신에게 충실하고 진실하여 그 스스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과 이치가 합일된 경지이자 인간 자신이 타고난 도덕적 자각이 완성된 상태인 ‘치양지(致良知)’에 이르게 된다.

명나라 중기 이후 지배 세력이 농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 농민 봉기가 확산되었다. 당시 농민의 구호는 ‘혼돈의 하늘을 열자’였다. 이는 주자학에서 말하는 정해진 하늘의 이치에 대한 부정이었으며, 주자학 대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라는 시대적 요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수인은 하늘이 정한 이치가 인간 주체와 분리되는 철학으로는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양명학은 개인과 자아라는 근대적 의식이 싹트고 전통 도덕으로 개인 의지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대두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결국 주자학과 양명학은 새로운 질서의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궁극적인 앎인 ‘이’에 관한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21.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주자학에서 설정하는 ‘이’와 ‘기’의 관계
- ② 명나라 중기 이후 농민 봉기가 확산된 이유
- ③ 주자학에서 제시하는 만물의 궁극적인 이치
- ④ 양명학에서 주장하는 ‘양지’가 회복된 상태
- ⑤ 송나라에서 ‘현실에서의 의리’를 강조하게 된 배경

22. <보기>에 대해 ‘왕수인’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白紙)와 같은 것으로 어떠한 생득적 관념도 갖고 있지 않다. 인간은 사물에 대한 감각적 지각과 경험을 통해 지식과 사물의 이치를 획득한다.

- ① 치양지를 위해서는 경험이 아니라 각각의 사물에 들어 있는 이치를 탐구한 다음 만물의 근원적인 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 ②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감각적 지각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먼저 주체와 분리된 ‘이’를 자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③ 경험을 통한 지식의 획득보다 감각적 지각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획득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④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경험을 우선시하기보다 만물의 본성이 곧 이치라는 깨달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 ⑤ 인간의 마음은 본래부터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양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이유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양명학은 왕수인 이후에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주자학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배 이념인 관학(官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이어졌다.

- ① 양명학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리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 ② 주자학이 군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 ③ 양명학은 양지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사물의 본성을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 ④ 주자학은 예의법도를 중시하여 도덕적 자각 능력의 수양 측면에서 양명학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 ⑤ 근대적 의식에 부합하는 주자학의 이념이 양명학에 비해 궁극적인 이치를 탐구하는데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면은 피로가 누적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잠을 자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수면은 심신의 회복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수면을 ‘자연의 부드러운 간호사’라고 했다. 수면은 ‘비-REM수면’과 급속한 안구 운동을 동반하는 ‘REM(Rapid Eye Movement)수면’이 교대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비-REM수면 이후 REM수면이 진행된다. 비-REM수면은 4단계로 진행되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수면이다. 이러한 수면의 양상은 수면 단계에 따라 달리 측정되는 뇌파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막 잠이 들기 시작하는 1단계 수면 상태에서 뇌는 ‘세타파’를 내보낸다. 세타파란 열은 잠을 자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로, 이때는 언제든 깰 수 있을 정도의 수면 상태이다. 이 단계는 각성 상태*에서 수면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로 뇌파가 각성 상태보다 서서히 느려진다.

2단계 수면에서는 세타파 사이사이에 ‘수면 방추’와 ‘K-복합체’라는 독특한 뇌파의 모습이 보인다. 수면방추는 세타파 중간마다 마치 실이 감겨 있는 것처럼 촘촘한 파동의 모습인데, 분당 2~5번 정도 나타나며 수면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K-복합체는 2단계 수면에서 나타나는데, 세타파 사이사이에 아래위로 갑자기 빠죽하게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실험에 의하면 K-복합체는 수면 중 갑작스러운 소음이 날 때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이것은 잠자는 사람이 깨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함을 알 수 있다.

깊은 수면의 단계로 진행되면 뇌파 가운데 가장 느리고 진폭이 큰 ‘델타파’가 나타난다. 3단계와 4단계는 ‘델타파’의 비중에 따라 구별된다. 보통 델타파의 비중이 20~50%일 때는 3단계로, 50%를 넘어서 더 깊은 수면에 빠지는 상태가 되면 4단계로 본다. 때문에 4단계 수면은 ‘서파수면(slow-wave-sleep)’으로도 알려져 있다.

서파수면은 대뇌의 대사율과 혈류량이 각성 수준의 75%까지 감소되는 깊은 잠의 상태이고, ㉠ REM수면은 잠에 빠져 있음에

도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때문에 서파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을 깨우면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며 혼란스러워하고, REM수면 상태의 사람을 깨우면 금세 각성 상태로 돌아온다.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을 정도의 비-REM수면은 온전한 휴식을 통해 진정한 심신의 회복을 가져다 준다. 자면서도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REM수면은 인간의 뇌의 활동이나 학습에도 도움을 준다. 비-REM수면이든 REM수면이든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활동은 영향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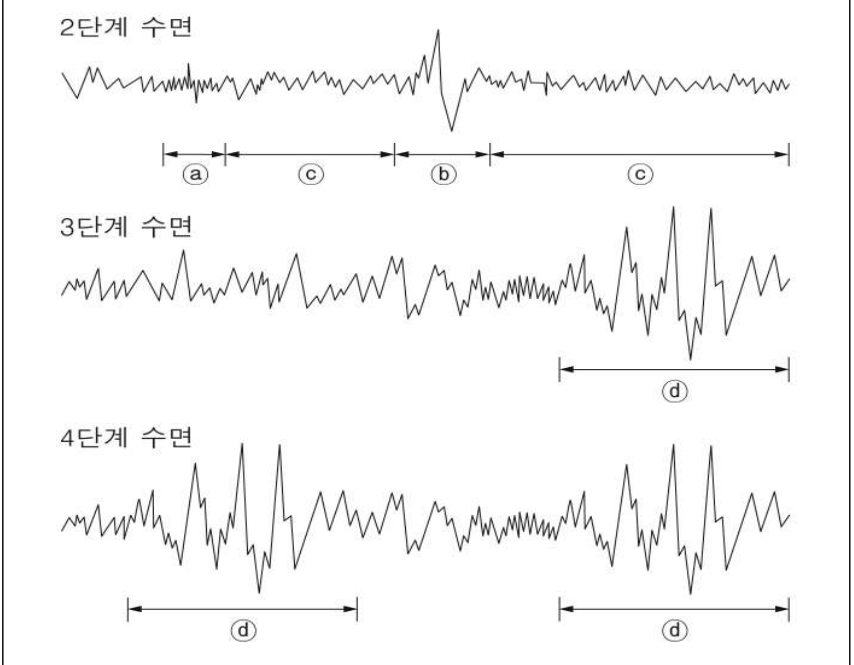
* 각성 상태: 눈을 뜨고 깨어 있는 상태

2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 수치를 통해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 ② 대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③ 현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다.
- ④ 비유적 진술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 의문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25. <보기1>은 수면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뇌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보기2>의 사례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1>



<보 기2>

- 선우는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취했다.
- 재형이는 열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가지 못하고,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 수민이는 밖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깨어 깊이 잠들지 못했다.

- ① 선우는 수면 상태에서 수민이보다 ㉠이 빈번히 나타났겠군.
- ② 선우는 수면 상태에서 수민이보다 ㉡와 ㉢가 여러 번 나타나겠군.
- ③ 재형이는 수면 상태에서 선우에 비해 ㉡가 자주 나타나지 않았겠군.
- ④ 재형이는 수면 상태에서 ㉢가 나타나는 단계와 ㉠이 나타나는 단계가 규칙적으로 교체되었겠군.
- ⑤ 수민이는 수면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소음이 날 때 ㉢가 활성화되지 못했겠군.

26. 윗글을 읽고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성에서 수면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이다.
- ② 대뇌의 대사율과 혈류량이 최소화되는 단계이다.
- ③ 각성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한다.
- ④ 정신적 피로보다는 신체적 피로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
- ⑤ 수면의 상태이나 정신 활동이 일어나고 뇌 기능에 도움을 준다.

[27~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2차 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한 불안, 인간 소외 등 예술적 정서나 의미를 과도하게 표현하려는 예술적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니멀리즘(minimalism)은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 기법으로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려는 예술적 경향을 지닌다.

이 사조는 예술 표현이 단순할수록 오히려 현실 세계를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단순성의 원리’와 인간의 지각은 총체적으로 이해된다는 ‘확장성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술 양상은 음악에서는 변함없는 강세 및 빠르기, 건축에서는 단순한 색채 및 재료의 사용과 기하학적 구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단순성과 확장성의 원리는 특히 조형물에서 잘 나타난다. 미니멀리즘에 의한 조형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의 최소화를 통한 ‘단순성의 원리’를 지향한다. 매개의 최소화는 작품의 재료, 소재, 형태 등 작품 표현에 사용되는 매개 요소를 변형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원재료에 가깝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구상, 일상의 사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오브제 트루베에 의한 구상,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구상 등으로 표현된다. 작품에서 매개 요소가 최소화되면 감상자가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감상자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편적인 형상으로 떠올리기가 더 쉬워진다. 작품에 사용되는 매개가 적고 단순할수록 감상자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감상자의 인식 속의 보편적 형상과 일치시키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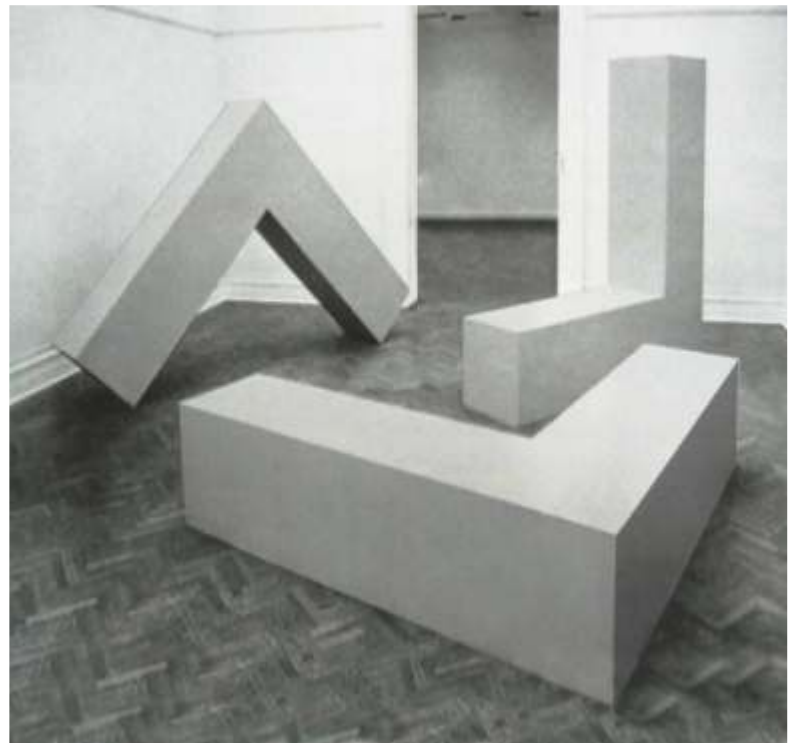
둘째, 미니멀리즘에 의한 조형은 기하 추상에 의한 ‘확장성의 원리’를 추구한다. 미니멀리즘 조형물이 놓인 공간은 작품의 배경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이 놓인 공간은 감상자로 하여금 작품을 그 작품이 놓인 공간의 관련성 속에서 감상하게 한다. 예를 들어 기하 추상에 의한 미니멀리즘 조형물을 감상할 때, 감상자는 그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작품 주위의 배경으로까지 시선이 이동되어 감상이 확대된다. 미니멀리즘 조형물은 기존의 조형물이 설치된 방식과 달리 주로 바닥에 배치된다. 이로써 작품 자체가 놓인 공간과 감상자가 서 있는 장소는 관람만을 위한 전망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감상을 위한 총체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즉 ‘확장성의 원리’는 조형물이 놓인 배경에까지 공간 체험을 확대하여 예술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니멀리즘 음악은 일정한 강세 및 빠르기를 사용한다.
- ② 미니멀리즘 조형은 매개 요소를 원재료에 가깝게 사용한다.
- ③ 오브제 트루베는 미니멀리즘 조형의 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 ④ 매개 요소가 다양할수록 미니멀리즘에 의한 감상의 폭은 넓어진다.
- ⑤ 미니멀리즘은 절제된 표현에 의해 본질을 표현하려는 예술적 경향이다.

28. 윗글과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무제-L빔들>은 로버트 모리스의 미니멀리즘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회색 빛깔의 두꺼운 나무로 된 산업재료 L빔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배치하여 작품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① L빔들을 바닥에 배치한 것은 일정한 위치에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공간을 한정시킨 것이군.
- ② L빔들과 공간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감상자는 예술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겠군.
- ③ 감상자는 배치되어 있는 L빔들을 감상할 때, 그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주위의 배경으로 시선이 확대되겠군.
- ④ 실제 산업재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매개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더 많은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⑤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매개요소로 사용하여 감상자의 마음속에 잠재된 이미지를 더 보편적인 형상으로 떠올리게 하는군.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읽으면서 의심할 줄 모르는 것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그들이 ㉠ 평소 많이 읽고 뜻을 터득하는 데에만 힘써 자세히 볼 여유를 갖지 못한 채, ㉡ 쫓기듯 바빠 책을 많이 읽는 데에만 버릇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점을 경계하여 위와 같은 버릇을 깨끗이 씻어 버리고 별도로 독서의 체계를 세워 ㉢ 자신에게 적합한 책 중에서 더욱 절실하고도 긴요한 것을 택해야 한다. 또한 책을 볼 때에는 자기의 능력에 따라 하루에 우선 한두 단락을 보고 그 부분의 이해가 끝나면 다른 단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 책 한 권이 다 끝나거든 다른 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 먼저 요청되는 것은, 마음을 텅 비우고 기운을 고르게 하여 숙독(熟讀), 숙고(熟考)해서 한 글자 한 구절까지 다 확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또 여러 학자들의 주석(註釋)을 하나하나 독파한 다음, 그들의 ㉤ 옳고 그름을 비교하여 성현들이 말씀하신 본뜻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뜻을 이미 이해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반복 음미하여 그 의미와 이치를 몸으로 체득

해야만 그것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 윤화정(尹和靖)의 문인들이 자기 스승을 칭찬하기를 ‘대단하시다. 성현들의 말씀과 육경(六經)의 내용을 환히 이해하고 마음 깊이 터득하시어 마치 자신의 말을 하는 것같이 하시는구나’ 하였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야 글 읽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처음 글을 읽을 때는 전혀 의심이 없었는데 두 번째 읽으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여 나중에 가서는 구절마다 의심스러워진다. 이러한 과정을 한 번 거쳐야만 의심이 점차 풀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아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이해하여 전혀 의심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부했다고 할 수 있다.

- 이이, 「성학집요」 -

29. ㉠~㉣ 중, <보기>에 나타난 정약용의 독서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보 기 >

다산 정약용은 식견을 새로 여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는 맹목적인 독서를 혐오하였다. 정약용은 질서(疾書)의 독서 방법을 취했다. 이것은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거나 깨달은 것이 있으면 잊지 않기 위해 빨리 메모했던 독서 방법이다. 그는 질서의 핵심이 의심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의심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0. 윗글에 나타난 독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을 때,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단계	독서 전략
읽기 전	· 잘못된 독서 태도를 경계하여 자신에게 맞는 독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①
읽기 중	· 글의 구조를 통해 내용을 예측하며 읽어야 한다. ② · 자신의 독서 능력에 맞게 독서의 분량을 조절하여 읽어야 한다. ③ · 자세히 읽기를 통해 본래의 의미를 탐색해야 한다. ④
읽기 후	· 내용을 반복적으로 음미하여 깨달은 바를 내면화 해야 한다. 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안평국의 왕자 적성익은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영주를 얻기 위해 서천으로 떠난다. 성의는 일영주를 구하지만 돌아오던 길에 형인 항의에게 일영주를 빼앗기고, 칼에 찔려 장님이 된다. 성의는 섬에 표류하였다가 중국 사신에 의해 황제를 만나게 되고 공주의 벗이 된다.

각설. 안평국 왕비 병세가 쾌복되었으나 성의의 사생 존물을 몰라 밤낮으로 슬퍼하더니 하루는 ㉠ 성의 있던 방에 들어가니 산호 서안에 만 권 서책은 의구(依舊)하나 형용(形容)*이 돈절(頓絶)*한지라. 심회 감창하여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옷깃을 적

시며 슬피 통곡하는데, 홀연 기러기 슬피 울거늘 왕비 울음을 그치고,

“네 비록 금수이나 성의의 소식을 전하고자 왔느냐?”

눈물을 금치 못하더니, 기러기 또 울거늘 괴이히 여겨 시녀에게 묻는데, 큰 소리로 가로되,

“이 기러기는 공자가 기르시던 바이라. 연전에 공자님 임행(臨幸)시에 기러기를 쓰다듬어 경계하여 가로되, ‘네 나와 더불어 일시도 떠남이 없더니 내 이제 곤전(坤殿)* 환후로 하여 만리원정에 가 약을 구하여 올지라. 기간 원별을 당하매 창연한지라. 너는 모름지기 처소를 떠나지 말고 부디 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라. 만일 무슨 소식이 있거든 곧 전하라. 지금 떠나면 언제 서로 모이리요.’ 하시니 기러기 대답하는 듯 응하여 울거늘 공자가 등을 어루만져 가장 사랑하시고 가신 후 우금 나가지 아니하옵기로 궁녀 등이 밥을 먹이옵더니 요새 밤이면 슬피 울거늘 이상하오나 내전이 초원(稍遠)*하옵기로 낭량이 모르심이니이다.”

왕비 청파(聽罷)에 시녀 등을 대책(大責)하사 왈,

“여등(汝等)이 이런 말을 나더러 아니 한다?”

궁녀 등이 황송하와 머리를 숙이더라. 왕비 즉시 기러기를 어루만지며 가로되,

“네 비록 미물이나 네 임자 있는 곳을 알지니 서천에 들어가 살았느냐, 망망대해 중에 어별(魚鱉)의 밥이 되었느냐? 만일 살았거든 내 앞에서 세 번 올라.”

이르시니, 기러기 목을 늘리어 세 번 울거늘 왕비 기뻐하시어 가로되,

“네 아는도다.”

이로써 즉시 한 봉 서찰을 쓰시며 가로되,

“네 임자가 살았거든 이 편지를 전할소냐?”

기러기 세 번 머리를 조아리거늘, 왕비 즉시 서찰을 기러기 다리에 매고 경계하여 가로되,

“네 두 날개로 만리를 가는 재주라 부디 이 글을 잘 전하라.”

이르니, ㉡ 기러기 세 번 소리하고 두 날개를 치며 청천에 올라 운간(雲間)으로 서북을 향하여 가는지라.

<중략>

성의 옷을 고쳐 벽옥을 따라 ㉢ 금각당에 올라가니 공주 반겨 좌를 주고 물어 가로되,

“그 사이 객고 어떠하뇨?”

성의 큰 소리로 가로되,

“천생이 성상의 하해지덕을 입사와 아직 일신이 편하나이다.”

공주 시녀를 명하여 진수성찬을 내오며 향온(香醞)*을 권하며 상을 물리매, 혹 단저도 불고 혹 단금도 희롱하며 각각 한 수시를 지어 화답하여 서로 칭찬하더니, 문득 월색이 명량하며 홀연 동남으로부터 기러기 슬피 울며 점점 가까이 와 중천에서 금각당을 맴돌아 울거늘, 공주와 좌우 시녀 나와 하늘을 우러러 살펴보며 심히 괴이히 여겨서 서로 볼 즈음에 성의 기러기 우는 소리를 듣고 혼백이 비월하여 생각하되, ‘이 짐승이 반드시 나의 기르던 기러기로다.’ 하고 정신이 어린 듯 취한 듯하여 앉았더니, 기러기 두 날개를 펴며 점점 내려와 성의의 앞에 앉으며 목을 늘리어 슬피 울거늘, 성의 그제야 쾌히 본즉, 기러기 온 줄 알고 급히 두 손으로 기러기를 덥석 안고 그 등을 어루만지며 울어 가로되,

“네 이제 나를 찾아왔으니 중전께서 반드시 승하하시도다.”

언파에 엮어져 혼절하거늘 좌우 시녀 놀라 급히 구할 때에
공주 살펴보니 기러기 다리에 한 봉서 매였거늘 바빠 끌러 본
즉 곁봉에 하였으되,

‘안평국 국모는 아자 성의에게 부치노라.’

공주 이르되,

“기러기 다리에 한 봉서가 매여 있으니 그대는 정신을 수습하
면 내 떼어 읽으리니 자세히 들으라.”

이르고 **봉서**를 떼어 보니 하였으되,

‘모년 모월 모일에 안평국 국모는 읍혈하고 아자 성의에게 글
을 부치노니 슬프고 슬프다. 네 나의 슬하를 떠난 지 거의 기
년이라. 망망천지 사이에 어느 곳에서 죽었느냐 살았느냐? 너
의 출천지효(出天之孝)로 나의 명(命)을 위하여 황당한 도사
의 말을 듣고 부모 슬하를 떠나 만경창과에 일신을 편주에
실어 서천에 가 일영주를 얻었으니 네 효성을 하늘이 감동하
심이나 너의 회정(回程)*하는 소식 없어 슬프다. 나의 아이
창과 중 어별의 밥이 되었느냐? 어느 지방에 의지하여 살았
느냐? 네 형이 일영주를 가지고 와 이르되, 네 삭발위승(削髮
爲僧)하여 불경에 잠심(潛心)하여 부모 버리고 부귀를 부운
같이 여긴다 하니 그 말을 가히 준신(遵信)*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너의 사생 존물을 모르는 중이나, 일영주를 먹은 후로
백병이 구퇴하여 완인(完人)*이 되었으니 너의 효성은 대순
(大舜) 증자(曾子)를 따를지라. 슬프다, 천사만량(天思萬量)
하여도 네 형의 불측한 행실은 천고에 드물지라. 너를 시기하
여, 노중에 불측한 환(患)을 만나 돌아오지 못함이나. 월명심
야(月明深夜)와 일모황혼(日暮黃昏)에 망망한 천지를 부앙하
여 부르짖어 울 따름이로다. 하루는 너 있던 방에 가 고적을
살펴본즉 슬픔만 쌓이고, 기러기 슬피 우니 이것은 네가 기르
는 짐승인 고로 경계하고 부탁한즉, 이것이 사람의 심사를 요
동하게 하는지라, 구만리 장천에 지향 없이 한 봉서를 부치나
니 행여 명천이 감동하시어 소식을 천만 전할까 바라나니, 기
러기 회편에 답서를 볼까 축수하나, 만행으로 소식을 들을진
대 구천에 들어가도 한이 없을까 하노라. 만단수회(萬端愁
懷)*를 지리히 펴고자 하나 혈루 먼저 가리니 여산약해(如山
若海)*한 말을 다 기록하지 못하고 그만 그치노라.’

성의 정신을 차려 듣기를 다하매 가슴이 미어지고 간장이 스
는 중 타는 중에 일변 반갑고 일변 처창(悽愴)하매*, 정신이 쇠
락(灑落)*하여 바빠 일어나 배사할 제, 문득 두 눈이 번개같이
뜨이니, 비하건대 구년지수에 햇빛을 본 듯, 칠년대한에 빗발을
본 듯, 침침칠야에 명월을 대한 듯, 황천에서 살아온 듯, 청천에
뛰어오른 듯, 생시인지 몽중인지 깨닫지 못하여 도리어 어린 듯
취한 듯이 정신이 황홀한지라.

— 작자미상, 「적성의전」 —

- * 형용: 사람의 생김새나 모습 * 돈절: 전혀 없음.
- * 곤전: 왕비를 높여 이르는 말 * 초원: 거리가 조금 멀.
- * 향운: 술의 한 종류 * 회정: 돌아오는 길에 오름.
- * 준신: 그대로 좇아서 믿음. * 완인: 병이 완전히 나은 사람
- * 만단수회: 마음속에 새겨진 온갖 근심
- * 여산약해: 산과 바다와 같이 매우 많음.
- * 처창하다: 몹시 구슬프고 애달프다.
- * 쇠락: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깨끗함.

3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안평국 왕비는 성의와 함께 기러기를 길렀다.
- ② 성의는 항의의 계략에 의해 서천으로 떠났다.
- ③ 안평국 왕비는 성의의 현재의 거처를 알지 못한다.
- ④ 안평국 왕비는 항의의 행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⑤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 했던 성의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3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과 ㉡는 기러기라는 매개체로 인하여 연결되는 공간이다.
- ② ㉠은 왕비가 상황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공간이고, ㉡는 성의와 공주가 친교를 나누는 공간이다.
- ③ ㉠은 왕비가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되는 공간이고, ㉡는 성의가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공간이다.
- ④ ㉠은 왕비가 성의의 소식을 궁금해 하는 공간이고, ㉡는 성의가 왕비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공간이다.
- ⑤ ㉠은 왕비의 지혜가 발휘되는 공간이고, ㉡는 성의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공간이다.

33. **봉서**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의 위기를 예고하는 복선이 된다.
- ② 주인공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계기가 된다.
- ③ 주인공이 신체적 장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
- ④ 주인공이 주위 사람들과 겪는 갈등을 해소시켜 준다.
- ⑤ 주인공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된다.

34. ㉠의 상황에서 왕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으)로 성의의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구나.”

- ① 고식지계(姑息之計)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 ③ 어부지리(漁父之利) ④ 천우신조(天佑神助)
- ⑤ 타산지석(他山之石)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지당(池塘)에 활수(活水)*이 드니 노는 고기 다 헬로다*
송음(松陰)에 청뢰(淸籟)*이 나니 금슬(琴瑟)*이 여기 있다
안자서 보고 듣거든 도라갈 주를 모르로다.

<제2수>

〔B〕 술 아래 길들 내고 못 우히 덩*를 썬니
풍월연하(風月烟霞)*는 좌우(左右)로 오느괴야
이 스에 한가히 안자 늘는 주를 모르리라.

<제3수>

〔C〕 집 두혜 즈차리* 뜯고 문 알퍽 물근 심 기러
기장밥 닉게 짓고 산채羹(山菜羹)* 므로 술마
조석(朝夕)게 풍미(風味)이 족(足)흠도 내 분인가 흥노라.

<제5수>

허구, 백 원만 물어 노슈. 오늘 이 지경 됐으니 사냥할 맛 있게 됐소? 오늘 하루두 우린 손해요.”

“참, 손해가 많으시군요! 허나 이 사람이야 단돈 십 원을 해낼 주제가 어디 되나요. 요 너며 이 사람 사춘이 한 분 계시니 내 넘어가 의논허구 과히 억울치 않두록 마련하오리다. 아무튼 주재소에만 알리지 말구 내려가 기다려 주시지요.”

㉔ 늙은 포수는 주재소 말이 저쪽에서 나온 김이라, 오후 세시까지 기다려서 소식이 없을 때는 주재소에 고소를 한다고 하였

고,
“저따위 덜된 자식은 몇 해 감악소 밥을 맥여야 사람 구실을 할 거요.”

하고 올라메었다.

아무튼 도야지를 각을 떠 석 점이나 지워 가지고 거리로 내려왔다. 식전에 십 리 길을 걸은 속이라 모두 시장했으나 한 사람도 고기 맛이 있을 리 없었다. 뒷일은 늙은 포수에게 맡기고 한과 윤은 젊은 포수를 데리고 꿩 사냥을 나갔다가 어스름해서야 돌아와 보니, 일은 더욱 상서롭지 못하게 변져 있었다.

양복 조끼의 사촌형이 돈 삼십 원을 주며, 이 돈만으로는 포수가 들을 리가 없으니 또 주재소에서 소문으로라도 벌써 모르고 있을 리 없을 것이니, 주재소로 가서 때리는 대로 맞고, 그저 죽을 때라 잘못했노라 하고, 이 돈 삼십 원밖엔 해놓을 수가 없으니, 이 돈으로 무사하게 처분해 달라고 빌라고 일러 보냈는데 돈 삼십 원을 넣은 양복 조끼는 주재소로도 포수에게로도 나타나지 않았다. 밤이 이슬해서는 그가 월정리역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차표 사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까지 퍼지었다.

사냥은 이렇게 마치고 말았다.

차가 창동을 지나니 자리가 수선회지는 바람에 한은 깜박 들었던 잠을 깨었다. ㉕ 집이 있는 서울이 가까워 온다. 그러나 한은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그는 생각하였다. 단돈 삼십 원으로도 달아날 수 있는 그 양복 조끼에게는 세상이 얼마나 넓으랴! 싶었다.

- 이태준, 「사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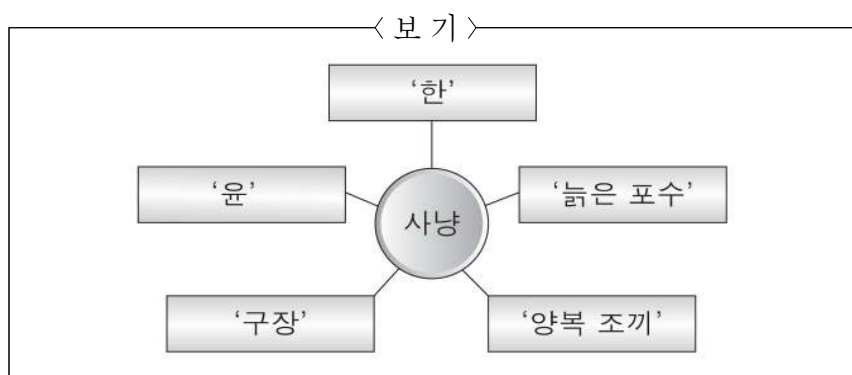
* 저혈: 돼지의 피

* 소불하: 적게 잡아도

37.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시켜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③ 과거 사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여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38. <보기>는 ‘사냥’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은 어떤 이도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의 범인으로 밝혀지지 않기를 바란다.
- ② ‘늙은 포수’는 사냥에서 얻은 포획물이 ‘양복 조끼’에게 훼손당하여 손해를 입는다.
- ③ ‘윤’은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의 범인이 밝혀진 것에 대하여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 ④ ‘한’에게 있어서의 사냥은 ‘늙은 포수’와 달리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에 대한 갈망이다.
- ⑤ ‘구장’은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를 해결하기 위해 ‘늙은 포수’와 ‘양복 조끼’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㉑ ~ 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다시 일상적인 공간으로 회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주인공은 일상적인 삶의 공간인 도시에서 벗어나 비일상적 공간인 야성의 세계를 찾아간다. 그러나 그곳 역시 매몰찬 계산의 논리와 위압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라는 것을 확인하며 다시 도시로 돌아온다. 어떤 공간에서든 질곡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① ㉑ : ‘편집실’과 ‘교실’은, 식민지 지식인이 찾아가고 싶어 하는 비일상적 공간이군.
- ② ㉒ : ‘촌길’과 ‘힘준한 산마루’는, 야성의 세계에 대한 인물의 지향을 보여주는 공간이군.
- ③ ㉓ : ‘이 자리’는, 야박하고 계산적인 논리에 의해 삶이 속박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공간이군.
- ④ ㉔ : ‘주재소’는 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비일상적인 세계도 위압에 의해 지배됨을 보여주는 공간이군.
- ⑤ ㉕ : ‘서울’은, 질곡의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주는 공간이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루해
너의 손목 싸쥐면
고드름은 운하(運河) 못 미쳐
녹아 버리고.

풀밭
부러진 허리 꺾건지다 보면
밀등 긴 폭포(瀑布)처럼
역사(歷史)는 철철 흘러가 버린다.

피다순 쪽지 잡고
너의 눈동자 령(嶺)넘으면
정전지구(停戰地區)*는
바심*하기 좋은 이슬젖은 안마당.

고동치는 젓가슴 뿌리세우고
치솟은 삼림(森林) 거니노라면
초연(硝煙)* 갇힌 밭두덕 가
새벽 열려라.

- 신동엽, 「새로 열리는 땅」 -

- * 정전지구: 일시적으로 전투가 중지된 지역
- * 바심: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낱알을 거두는 일
- * 초연: 화약의 연기

(나)

아마 무너뜨릴 수 없는 고요가
공터를 지배하는 왕일 것이다
빈 듯하면서도 공터는
늘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
공터에 지는 바람, 봄비는 바람,
때때로 바람은
숨털에 싸인 풀씨들을 던져
공터에 꽃을 피운다
그들의 늙고 시듦에
공터는 말이 없다
있는 흙을 베풀어주고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무심히 바라볼 뿐.
밝은 날
공터를 지나가는 도마뱀
스쳐가는 새가 발자국을 남긴다 해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빗방울에 자리를 바꾸는 모래들,
공터는 흔적을 지우고 있다
아마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고요가
㉠ 공터를 지배하는 왕일 것이다

-최승호, 「공터」-

4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시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수미상응의 구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신동엽의 현실 인식은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에 머물지 않고 ‘있어야 할 현실’을 지향한다. 이 시에서도 분단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동질성이 회복된 현실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결국 이 시에서 ‘있어야 할 현실’은 민족 공동체의 염원과 기대가 담긴 민족 화합의 장이다.

- ① ‘고드름’은 공동체의 동질성이 회복된 민족 화합의 현실로 볼 수 있군.
- ② ‘부러진 허리’는 민족 공동체의 분단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역사는 철철 흘러가 버린다.’는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④ ‘정전지구’는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 ⑤ ‘새벽 열려라.’는 민족 공동체의 염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4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방향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 ② 화자가 통념과 달리 새롭게 바라보는 대상이다.
- ③ 화자의 세계에 대한 대결 의지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④ 화자가 낮은 세계를 동경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 ⑤ 화자의 삶이 투영되어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대상이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현’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할아버지와 현실을 개혁하려는 삶을 살았던 아버지 사이에서 방황하는 지식인이다. ‘현’은 일제 강점기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주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평범한 생활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은 월북했다가 6·25때 돌아온 친구 ‘연호’가 주도하는 인민재판에 분노하여 총을 난사하고, 자신도 총상을 입은 채 동굴로 피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S#53. 읍내 플랫폼

이른 새벽, 안개 속에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길 떠날 차림의 현과 고영감, 어머니가 온다. 품속에서 여남은 장 ㉠ 지전 다발을 꺼내더니.

고영감 아랫말 과수원 판 돈이여. 헛되이 쓰지 말구 꼭 대학에 붙어서 판검사가 되야 혀.

공손히 받는 현.

고영감 네가 우리 집안에 기둥이 되야 혀. 부디 성공을 해라.

이윽고 먼 기적 소리. 기차가 들어온다.

현 그럼, 할아버님.

고영감 오냐. 일본에 가 거처를 정하걸랑 곧 연락을 혀. 돈도 필요하면 더 보낼 테니께.

현 (어머니를 돌아보다.)

현모 내 걱정 말구 아무쪼록 객지에서 몸 성히 다녀와라.

눈물고인 시선 꼭 손목을 잡아준다. 기차에 오르는 현. 저만치 역 구내에 영순이가 서 있다. 가만히 손 들어주는 현. 영순 돌아서 온다. 이윽고 ㉡ 발차 신호. 천천히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점차 멀어지는 그들. 손을 흔드는 현.

S#54. 기차 안

차창에 앉은 현. 멀어져가는 고향 풍경. 자꾸 뒤돌아본다. 기차가 터널로 들어간다. 어두워지는 주위. 웬일일까? 기차만 가고 현만 남아 있다. 이상하다. 동굴 안에 달랑 남아 꿈결인 양 둘러보는 현.

S#55. 동굴 안(밤)

동굴 속에 앉아 있는 현. 몽롱한 의식 속에 괴로워하다가 펄떡 눈을 뜬다. 뚝, ㉢ 떨어지는 물방울. 아, 역시 동굴 속이라 정신을 가다듬어 내다보는 현.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다. 점점 기력이 쇠진하고 의식이 몽롱해지는 현. 상처 찌시는 다리에 가만히 손을 댔다가 눈앞에 가까이 본다. ㉣ 검붉은 핏자국. 가쁜 숨결. 이윽고 헛소리 하는 현.

“..... 죽는 걸까?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건가? 맥박이 뭘 적마다 피가 흐른다. 몇 시간이나 더 지탱할 수 있을까...... 아니 그놈이 올 텐데...... 그놈은 꼭 오고야 말 것이다.”

메마른 입술. 전신을 스치는 소란. 현, 총신을 잡고 고통에 쩌

그리며 가만히 일어난다. 지레 문 어금니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 온다. 현, 다리를 끌고 나가 동굴 입구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마신다. 얼굴을 적시는 빗줄기. 어두운 계곡에 뽀얀 물보라. 저 멀리 마을 쪽에 ㉠ 예광탄 하나가 밤하늘을 굶는다. 흠칫 놀라는 현. 충신을 거머쥐고 겨냥하며 슬금슬금 안으로 든다. 마치 게 한 마리 나오려다 도로 기어들어가는 것 같다. 현, 눈을 지그시 감고 고통을 참는다.

현 뉘은 온다……. 꼭 온다……. 나를 죽이러 온다…….

문득 먼 포성. 흠칫 귀를 기울이는 현. 계속되는 포성.

현 천둥소리? 아니 저건 포 소리 같은데……. 포 소리……. 포 소리가 분명해.

현의 목소리가 우릉우릉 굴속을 메아리쳐 굴러가며 거기 다시 환청으로 누구의 목소리가 메아리 되어 울리며,

“(오노오노 소노 도꼬로에 에시무) 모두들 각자의 자기 설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개인을 절대적 단위로 하고 무원칙적인 평등과 무제한한 자유를 목적으로 한 서구의 사회 질서는 극도의 혼란을 조장케 되었고 그 문명은 바야흐로 몰락의 과정에 이르게 된 것이며…….”

S#56. 일본 제대 강의실

철판에 커다랗게 팔굉일우(八紘一宇) 휘갈겨 써 놓고 변사조의 강의를 계속하는 동양윤리학 교수 다까라. 멍한 얼굴로 강의를 듣는 현.

다까라 이때야말로 빛은 동방으로부터 첫손 미죽이 켜기할 때는 당도한 것이다. (오노오노)……. 그것은 존재의 군화원리를 투시한 것이며 겸허한 인간 정신의 가치는(고에 다까라니 우따우모노)……. 소리 드높여 노래하는 것이라. 역사적 대사명……. 팔굉일우 얼마나 장엄한 선언이냐?

장엄한 선언? 비웃듯 되물어보는 현의 표정.

다까라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미영의 굴레에 억압된 황색민족을 해방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여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야 한다. 이 얼마나 비장하고 장엄한 사명이냐?

S#57. 동굴 안(밤)

눈감은 채 괴로워하는 현.

현 그래서?

S#58. 강의실

다까라 (쪼르르 달려가 흑판에 대일본제국이라고 휘갈겨 쓰고) 따라서 우리 국민 각자는 이 거룩한 대의에 한 목숨 초개 같이 버려 천황 폐하의 황은에 보답해야 하는 것이다. 보라. 들에 노는 축생일지라도 그들 자신을 벌함으로써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그들의 한 가닥 뼈마져 인간을 위해 달게 바치고 있는 것이다.

S#59. 동굴 안(밤)

“(따지듯) 달게?”

— 선우휘 원작. 이은성 외 각색, 「불꽃」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내면 의식의 흐름을 중심으로 극이 진행되고 있다.
- ② 다양한 효과음이 활용되어 작품의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다.
- ③ 시간의 역전된 흐름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④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 ⑤ 공간의 변화에 의해 현실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나타난 장면 전환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영화의 장면은 연속된 시간이나 공간으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공간이나 연속성을 벗어난 시간으로 장면이 전환되기도 한다. 서로 다른 공간이나 시간을 연결하는 경우, 두 장면의 연속성을 암시하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이는 주로 선·후행 장면에서 나타나는 상황의 유사성, 선·후행 장면 내의 소재나 형상의 유사성, 선·후행 장면에 포함된 소리의 유사성 등으로 표현된다.

- ① S#54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것과 S#55의 동굴 안은 어둠이라는 상황의 유사성을 이용한 장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군.
- ② S#55에서 굴속에서의 현의 목소리와 일본인 교수의 목소리는 메아리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S#56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군.
- ③ S#56에서 S#57로의 장면 전환은 교수의 강의에 대해 현이 반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의에 대한 반응’이라는 상황의 유사성으로 연결시키고 있군.
- ④ S#57에서 S#58로의 장면 전환은 괴로워하는 현의 신음 소리와 교수의 강의 소리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군.
- ⑤ S#58에서 S#59로의 장면 전환은 교수의 말의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달게’라고 반문하는 ‘현’의 말의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군.

45. ㉠ ~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현’에 대한 ‘고영감’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 ② ㉡은 이별의 시간이 되었음을 청각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 ③ ㉢은 ‘현’이 자신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있다.
- ④ ㉣은 ‘현’의 부상이 심각한 상태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은 자신을 구해줄 사람에 대한 ‘현’의 기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